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20 무울타악기와 에필로그 Epilogue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3편. 트롬본
- 14편. 호른
- 15편. 튜바
- 16편. 기타
- 17편. 피아노
- 18편. 파이프 오르간
- 19편. 유울타악기
- 20편. 무울타악기 및 에필로그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무울타악기를 들어가며

타악기군에는 팀파니, 실로폰, 마림바, 비브라폰, 튜블라 벨 등 음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울타악기와 단지 리듬만을 표현하는 드럼류(베이스, 스네어, 탐탐 등), 심벌즈, 트라이앵글, 마라카스, 탬탐(= 공) 등의 음계를 표현할 수 없는 무울타악기가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무울타악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베이스 드럼 Bass drum

우리가 제목은 잘 모르지만 광고 음악으로 자주 접했던 클래식 음악이 있다.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Requiem}(진혼곡) 중 디에스 이레^{Dies Irae}(진노의 날)라는 곡으로 이 곡의 도입부에서 팀파니와 베이스 드럼이 협연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마치 베이스 드럼이 주인공이듯 강렬하게 타격함으로써 곡의 장엄함과 위압감을 배가시킨다. 베이스 드럼은 팀파니, 더블 베이스, 바순, 튜바 등과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저음을 담당하며 양쪽으로 커다란 북면을 가진 원통형의 거대한 타악기이다. 두꺼운 펠트로 헤드를 감싼 스틱으로 치면 쿵쿵 혹은 펑펑하면서 위압적이고 웅장한 저역의 사운드에서 포근하고 낮은 울림을 내는 베이스 드럼은 큰북이라고도 한다. 대중음악에서는 스틱(비터)이 달린 페달을 이용해서 발로 밟으면서 연주함으로써 킥^{Kick} 드럼이라고 부른다. 마칭 밴드에서는 상반신보다 큰 북을 앞으로 메고 걷게 되는데 먼 거리를 행진하려면 참 애처로워 보인다.



마칭 밴드 베이스 드럼
/ clipartpanda.com

베이스 드럼은 예로부터 군대에서 행진이나 의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베이스 드럼과 군대행진곡의 경우 행군을 하기 위한 주기적인 리듬을 연주한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작은 소리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현부터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잡아먹어 버릴 정도로 웅장하고 커다란 음향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차지한다. 17~18세기 무렵 오케스트라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은 클래식, 행진곡, 재즈, 락, 팝, 댄스음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주되고 있다. 특히 팝, 댄스 및 락 같은 대중음악에서는 리듬의 핵심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이지만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대중음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일단 클래식음악 분야에서 베이스 드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 악기는 터키의 악기인 다블^{Davul}에서 유래되었다. 13세기 말 14세기 초에 등장한 오스만 제국(오스만 튀르크 제국이라고도 함)은 터키의 전신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개 대륙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던 나라였다. 다블은 오스만 제국의 군대용 타악기로 사용되었는데 16세기 유럽으로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악기는 오른손으로 굵은 스틱을 왼손으로는 얇은 작대기를 이용하여 연주하는데, 유럽인들은 그 음색에 반해서 17세기 무렵 그들의 군악대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으며 터키 드럼이라고 불렀다.



Davul / europeana.eu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오케스트라에도 기용되었으며 터키 드럼과 큰북이라는 이름으로 혼용되었다. 19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베이스 드럼이란 명칭이 사용되며 펠트로 만들어서 만든 헤드를 가진 스틱으로 연주하게 된다. 그리고 한 명의 주자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심벌이 달린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기도 했으며 19세기 말엽에는 타악기로

서 확실한 위상을 쌓게 된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드럼 세트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베이스 드럼에 심벌과 탐탐, 우드블록, 카우벨 등을 달아서 혼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하였다. 20세기 초반 미국에는 재즈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흥겨운 리듬으로 인해 드럼이 아주 중요해진 장르의 음악이다. 특히 빅밴드 재즈 밴드의 경우 드러머 혼자서 수십 명의 관악파트 멤버들과 음악적으로 합을 맞추어야 했다. 지금도 드럼으로 유명한 상표 중에 루드윅이 있는데 혼자서 세트 드럼의 연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발명품인 페달이 루드윅^{Ludwig}에 의해 개발되었다.

클래식에서는 콘서트 베이스 드럼이라고 부르며, 대중음악에 사용되는 것(지름 18~24인치)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깊은 형태의 베이스 드럼을 사용하는데 지름은 24~39인치이며 깊이는 13~25인치 정도이다. 과거에는 세로로 세워서 사용하였으나 연주하기 편하게 점차 기울여서 전용 스탠드에 설치하여 연주하게 되었다. 복면(헤드)에는 주로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며 현대에는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헤드 부분에는 여러 개의 리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이면 소리가 타이트하고 울림이 생기며, 반대로 느슨하게 하면 약하고 울림이 없는 소리가 나온다. 보통의 경우 위아래의 장력을 다르게 하는데 치는 면의 장력을 조금 더 강하게 조율한다. 강하게 연주하게 되면 함께 연주하는 악기들의 소리가 묻힐 정도로 그 인상이 매우 강하다. 반면에 약하고 부드럽게 연주하는 경우에는 섬세하고 포근한 표현이 가능하다. 저역의 악기 특성상 빠른 연주는 어울리지 않지만 롤 주법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롤 주법은 평상시 1개의 채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2개의 채를 양손에 쥐고 교대로 연타하게 된다. 손에 든 채를 팀파니는 말렛이라 부르지만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에는 스틱이라는 표현을 쓴다.



콘서트 베이스 드럼과 빅사이즈 베이스 드럼 / 유튜브

마칭 밴드의 경우 우천 시 습기에 강하고 관리가 편하며 연주에 지장이 없는 플라스틱 헤드를 사용하는데 멜빵이나 하네스를 사용해서 앞으로 메고 연주하므로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베이스 드럼보다 악기의 크기와 폭이 좁다. 14인치에서 36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다수의 베이스 드럼 주자들이 여러 사이즈의 악기를 메고 크기별로 정렬하게 된다.



마칭 밴드 베이스 드럼 / vintagelogs.com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세트드럼을 이용하여 리듬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데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 탐탐, 각종 심벌 등이 한 세트에 이루어져 있다. 베이스 드럼은 1박과 3박을 연주하고 스네어 드럼은 2박과 4박을 연주함으로 ‘쿵뽕쿵뽕’하는 리듬을 만들어 낸다. 게다가 하이햇은 리듬을 쪼개거나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세트드럼에서 킁, 스네어, 하이햇의 3요소는 음악의 리듬을 담당하는 핵심멤버이다. 세트드럼은 수많은 북들과 심벌들을 혼자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 드럼과 하이햇은 페달이 달려 있어서 발로 제어한다. 최초의 베이스 페달은 루드윅이 1909년에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은 혼자서 복잡한 세트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대중음악의 베이스 드럼은 풋 페달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기 때문에 킁^{kick} 드럼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사이즈는 지름이 18~26인치이며, 깊이는 14~18인치 정도이다.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눕혀서 설치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스퍼^{spur}가 장착되어 있고 올림이 있는 좋은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프론트 헤드를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살짝 띄운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탐탐^{TomTo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탐 홀더 베이스가 장착되어 있다.

베이스 드럼의 연주법은 다음과 같다.



킁드럼과 탐 홀더 베이스 / thomann.de

스틱에 따른 음색 변화

일반적으로 나무막대에 펠트를 감은 스틱이 기본이며 소프트 헤드라고 하는데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연주에 따라 스네어 드럼 스틱이나 나무스틱 등의 하드 헤드도 사용한다. 어택이 강한 스트레이트한 음색으로 아티큘레이션(각각의 음을 뚜렷하게 들리게 하는 것)에 유리하다. 나무스틱은 양면형도 있는데 한쪽은 나무이고 반대쪽은 나무에 가죽이 덧씌워진 제품도 있어 상황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브러시도 사용하는데 마찰하면서 끌리는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으며 특수한 효과에 사용한다. 펠트 스틱으로 부드럽게 롤 연주(스틱을 양손에 들고 교대로 빠르게 연타하는 주법)를 하면 포근한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표현도 가능하다. 반대로 롤 연주를 강하게 하면 강한 긴장감과 압도감을 느낄 수 있다.



베이스 드럼 소프트 스틱과 하드 스틱 / thomann.de

타점에 의한 음색변화

악기의 중앙과 가장자리의 중간 위치를 스틱으로 치면 밝은 소리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연주하는 위치이며 중앙을 치면 어두운 소리가 난다. 가장자리에도 연주를 하는데 좀 더 가벼운 소리가 나며 롤 연주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한다.

풋 페달에 의한 연주(대중음악)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풋 페달을 이용하여 베이스 드럼을 연주한다. 풋 페달을 발로 밟게 되면 짧은 스틱에 연결된 비터^{Beater}가 헤드를 타격함으로써 소리가 나는데 이런 이유로 킥 드럼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발로 밟는 풋 페달에 의해 헤비메탈 혹은 스래시 메탈, 스피드 메탈, 익스트림 메탈 등의 장르의 속도에 있어서 극단적인 스피드로 연주하는데 BPM^{Beat Per Minute}(1분에 몇 개의 비트가 연주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이 매우 높은 빠른 음악들이 많다. 이들은 풋 페달 하나도 모자라서 보다 빠른 속도를 이루기 위해서 베이스 드럼 2개를 좌우로 설치하여 연주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베이스 드럼에 비터 2개가 교대로 타격하는 장비인 더블 베이스 드럼 페달 혹은 트윈페달을 사용하는데, 이를 소화하기 위해 드러머는 엄청난 연습과 극한의 체력을 필요로 한다. BPM이 무려 180에서 240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연주하는 극한의 드러머도 있다.



베이스 드럼에 관련한 뒷이야기

풋 페달로 장애를 딛고 일어난 헤비메탈 드러머 **릭 앨런**^{Rick Allen} 1980년대는 팝플러한 AOR^{Adult oriented rock} 혹은 LA메탈(일명 Hair Metal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남성 락커들은 머리를 한 긴 머리에 헤드뱅잉^{Head Banging}을 화려하게 하면서 연주를 함)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밴드는 전용 제트기로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며 수백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팔아 치우기도 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규모 스타디움이나 아레나에서 개최하는 콘서트가 매진되고 헤비메탈 뮤지션은 잘나가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 못지



릭 앨런 드러머 / metalheadzone.com

않은 염문을 뿌리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소위 락의 황금시대였다.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 배출한 밴드가 많이 활동했다. 그중에서 영국의 5인조 인기 락 밴드 ‘데프레파드’^{Def Leppard}가 있는데 그들은 전통 헤비메탈에 화려한 멜로디 위주의 음악을 구사했으며 팝 메탈이라고 불릴 만큼 청량감 있는 연주와 대중적인 멜로디로 다양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다. 밴드가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드러머 리크 앨런이 1984년 12월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왼쪽 팔을 절단하게 된다. 드러머에게 왼쪽 팔이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일이 있은 4년 후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가 새 음반을 발표한 데프레파드와 함께 성공적인 컴백무대를 갖게 된 것이다.

성공적인 연주가 가능했던 건 바로 리크 앨런과 멤버들이 고민 끝에 제작한 여섯 개의 풋 페달이 달려있는 특수 드럼세트 때문이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우정 어린 멤버들의 정성에 감동한 리크 앨런은 매일 8시간 이상 맹훈련하면서 팔보다 발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연주법을 터득하게 된다.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멤버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면서 그는 그 누구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연주를 화려하게 해냈다. 이로 인해 밴드는 원래 누렸던 인기보다 2배 이상의 인기를 누리며 1,700만 장이라는 기록적인 앨범판매고를 올리게 된다.

외팔 드러머로서 기적 같은 삶을 산 리크 앨런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기 힘듭니다.”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가능은 포기가 아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해보세요. 가능해집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릭 앨런 드럼세트 / drumforum.org

투 베이스 드럼의 창시자 루이 벨슨 Louie Bellson

루이 벨슨은 스피드 메틀이나 스레쉬 메틀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투 베이스 드럼방식을 15세의 어린 나이에 최초로 창안한 재즈 드러머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연주를 제시했다. 그는 타미도시 Tommy Dorsey, 카운트 베이시 Count Basie, 듀크엘링턴 Duke Ellington 악단 등의 스윙재즈 밴드를 거치면서 그래미 어워드에 6번이나 노미네이트되었으며 1998년에는 ‘살아있는 음악의 전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드러머이지만 작곡도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는데 ‘Skin Deep’과 ‘The Hawk Talks’를 듀크 엘링턴에게 헌정하여 엘링턴의 영원한 레파토리가 되게 하였다. 그는 2009년에 파킨슨 병으로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루이 벨슨 / m.imdb.com

킥 드럼 머플러

가끔 보면 베이스 드럼 안에 두꺼운 담요나 모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킥 드럼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게 되면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다. 필자도 음악과 관련한

전문적 일을 하기 전에는 ‘왜 저 안에 이불을 넣어 놔을까’ 하고 의문을 품긴 했으나 알 방법이 없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주변에 아는 드러머가 없었기 때문에 모포를 넣는 이유는 먼 훗날 알게 되었다. 바로 뮤트 혹은 머플링을 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소리가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모포나 두꺼운 패드를 넣고 무거운 아령이나 쇳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잘 고정되어 울림이 없는 타이트한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요즘은 킥 드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용 머플러들이 출시되고 있다.



모포 머플링 / soundonsound.com

킥드럼 머플러
/ gear4music.com

스네어 드럼 Snare Drum

영화 ‘위플래시’를 보면 최고의 드러머로 출세하고자 풍운의 꿈을 안고 음악 명문 학교인 셰이퍼에 입학하여 드럼을 배우는 학생 앤드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악랄하면서 잔혹한 스승 플레처의 지도하에 강압적인 훈련과 맹연습을 하는데, 드러머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이별을 통보하고 스틱을 쥔 손에 상처가 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지만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스승에게 버림을 당한다. 이후 다시 만나 환상의 연주를 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 영화이지만 액션 영화 못지않은 스틱을 맛보게 한다. 앤드류가 얼마나 스네어 드럼을 두드려 뺐는지 피가 흥건히 젖은 붓대를 감은 손으로 쉬지도 않고 악기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이 속주를 위해 그의 왼손을 혹사했던 스네어 드럼에 대해 알아보자.



영화 위플래시
스틸컷



스네어 드럼은 납작한 원통형의 쉘에 위아래로 북면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아래쪽 북면(Bottom Head)에 코일 형태의 금속줄(스내피Snappy)을 장착해 독특한 사운드를 내는 북의 일종으로 오케스트라에서 고음을 담당한다. 연주는 위쪽 북면(Top Head)을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드럼 스틱으로 타격한다. 이 악기는 팝이나 락음악 같은 대중음악에서 리듬의 핵심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인 반면에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그 용도가 제한적이다. 규칙적이고 화려한 리듬연주가 필수인 마칭 밴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악곡에서는 효과음이나 극적 효과를 위해 사용된다. 스네어 드럼은 군대행진곡에서 리듬을 연주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악기의 유래는 중세시대에 테이버(Tabor)(작다는 뜻) 드럼이나 사이드(Side)(군대가 행진할 때 연주자가 몸 옆으로 드럼을 고정하기 때문에) 드럼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스네어 드럼의 경우 베이스드럼과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에서는 악곡의 일부에서 효과음을 연주하는데 그치지만 대중음악(가요, POP, ROCK, JAZZ 등)이나 마칭 밴드에서는 악곡의 리듬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악기이다. 주로 14인치 크기를 사용하며 이보다 작은 사이즈를 피콜로 스네어라고 하며 보다 높은 음을 발생한다.

마칭 밴드에서의 스네어 드럼은 악곡에서 리듬의 핵심을 맡고 음역도 고음대를 커버한다. 이 드럼은 일반적인 스네어 드럼보다 쉘의 크기도 크고, 북면의 크기도 더 크고 두꺼워서 튜닝 시 텐션볼트도 강하게 조인다. 그 결과 스틱의 반동이나

반응성이 좋아서 일반 드럼 스틱보다 훨씬 두껍고 긴 드럼 스틱을 사용하여 복잡한 리듬을 표현하기에 유리하다. 대중음악에서는 세트드럼을 사용하는데 이 안에 스네어 드럼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음악에서 세트드럼은 리듬에 있어서 킁, 스네어, 하이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 탐탐은 장식적 효과나 곡 중에 필인(Fill in)에 사용되며 각종 심벌류는 특수 효과나 양념으로 사용된다.



세트드럼 / musicpartnership.com.au



악기 사이즈(인치)별 음높이 / yamaha.com



스네어 드럼의 구조 / alfred.com

스네어 드럼의 쉘은 나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드럼의 뼈대로 재질에 따라 음색이 다르며 요즘은 나무와 수지를 합성하여 강도도 강하고 비교적 가격이 싼 하이브리드 재질도 사용한다.

- ① 메이플^{maple} : 딱딱한 재질의 나무로 어택이 좋은 밝은 톤
- ② 마호가니^{mahogany} : 메이플보다 울림이 강하고 더 따뜻한 톤
- ③ 버치^{birch} : 부드러운 재질로 온화하고 풍부한 톤
- ④ 스틸^{steel} : 어택이 강한 파워풀하고 화려한 톤
- ⑤ 브라스^{brass} : 스틸보다 밝고 풍부한 톤
- ⑥ 알루미늄^{aluminum} : 예리하면서 어택이 강하고 타이트한 톤

스네어 드럼의 연주법은 다음과 같다.

스틱을 다루는 테크닉

- ① 싱글스트로크 : 한번 쳐서 내는 소리를 말하며 더블 스트로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 양손을 교대로 빠르게 치는 싱글스트로크 롤 주법도 있다.
- ② 더블스트로크 : 한 손으로 내리칠 때 두 번 연타하는 것으로 들리는 소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빠르게 연주할 수 있는 주법이다. 마찬가지로 더블스트로크 롤 주법도 있다.
- ③ 파라디들 : 싱글과 더블의 조합 연주
- ④ 플램 : 무울타악기편 참조
- ⑤ 드랙 : 무울타악기편 참조

스틱을 치는 위치에 따른 음색 변화와 연주

- ① 일반적인 헤드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스틱을 치는 위치에 따라 울림이 다른데 가운데보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울림이 작은 소리가 난다.
- ② 림샷 : 림과 헤드를 함께 치는 타법으로 락 음악과 같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큰 소리가 필요할 때 연주하며 액센트를 주기에 효과적이다. 림과 헤드를 한 스틱으로 동시에 타격해야하므로 각도를 정확히 해서 연습해야 한다.
- ③ 오픈 림샷 : 한쪽 스틱 끝을 헤드에 대고 비스듬히 세워서 다른 쪽 스틱으로 세워진 스틱 중간을 타격하는 연주법
- ④ 클로즈드 림샷 : 림 클릭이라고도 하며 한쪽 손을 헤드 가장자리에 올리고 스틱을 거꾸로 잡고 림을 치는 방식으로 어택음이 강하여 ‘딱’하는 밝은 소리가 난다. 이 주법은 주로 발라드와 보사노바에 애용된다.

스틱의 종류에 따른 음색 변화와 연주

- ① 스틱^{stick} : 재질에 따라 우드와 메탈이 있는데 우드 스틱 보다는 메탈 스틱이 더욱 강한 소리가 난다. 빗자루처럼 작은 나무막대들을 모아서 만든 스틱(Rod Stick)도 있는데 이것은 브러쉬에 비해서 어택은 강하고 음량도 많다.

- ② 브러쉬^{brush} : 재질에 따라 나일론과 철사로 나누며 재즈나 부드러운 분위기의 팝 음악에 사용된다. 브러쉬는 북면을 때리거나 쓸면서 연주한다.

스네어 드럼에 관련한 뒷이야기

탐탐^{TOM TOM}

세트드럼에서 킥과 스네어를 제외한 북을 탐탐이라고 부른다. 사이즈별로 스몰(8~10인치), 미들(12인치), 플러어탐(14인치 이상)으로 부르며 보다 많은 음정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5개 TOM에서 7개 TOM까지 설치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숫자를 순서대로 붙여서 명명한다. 탐은 구경이 작은 것이 고음, 구경이 큰 것이 저음이 나며 크기별로 음정이 있어서 유울타악기와 무울타악기의 중간 형태의 북이다. 몸통이 깊을수록 울림이 좋으며 몸통이 얇거나 헤드를 위쪽만 설치한 싱글헤드 탐일수록 울림이 적고 어택음이 강해진다. 대중음악에서 화려한 드럼 악구의 연주, 곡의 전환이 필요할 때, 필인 등에서 탐을 사용하는데 ‘두구두구두구’하면서 순서대로 치기도 한다. 오케스트라에서도 콘서트 탐이라고 하여 사이즈별로 여러 대를 설치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인기그룹 토토^{ToTo}의 두 번째 드러머인 사이먼 필립스^{Simon Phillips}가 여러 대의 탐을 설치하여 연주하기로 유명한데 그의 화려하고 정교한 연주로 인해 티어스 포 피어스, 게리 무어, 마이클 쉥커, 스탠리 클락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걸출한 뮤지션 등과 팝, 락, 재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내한공연에서 그는 직접 드럼세트를 4시간 넘게 일일이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수는 그냥 되지 않는 것 같다.

클릭사운드와 드러머

밴드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 드러머들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연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대중음악 드러머들은 정확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클릭사운드(전자 메트로놈)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드럼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박자의 리듬 연주가 가능하게 된다.



전자 메트로놈
/ musik-produktiv.com



콘서트 탐탐 / yamaha.com



사이먼 필립스 세트드럼 / steinberg.net

심벌즈 Cymbals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서 태엽을 감으면 원숭이가 동그란 금속 접시를 손에 쥐고 박수치듯이 움직이면 ‘칭칭’하고 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 놀아본 적 있을 것이다. 장난감 원숭이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악기가 심벌즈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즈는 두 장의 심벌을 맞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복수형 어미를 붙여서 심벌즈라고 부른다. 이하 심벌이라고 짧게 표현하겠다.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Carmina Burana (보이렌의 노래집이란 뜻으로 총 25곡으로 이루어짐) 중 서곡 O Fortuna(오! 운명의 여신이여)를 들어보면 오케스트라와 대규모 합창단이 어우러져 마치 장대한 서사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 곡이 주는 강렬한 느낌에 오죽하면 각종 기행을 거듭하며 악마를 신봉하고 온몸에 문신까지 한 헤비메탈계의 거성 오지 오스본 Ozzy Osbourne의 라이브 오프닝 송으로 사용될까! 카르미나 부라나 O Fortuna의 곡 중에서 극적 효과를 위해서

대중음악에서 심벌은 세트드럼에 T형 혹은 I형 스탠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심벌을 설치하여 연주하게 되는데 북의 리듬을 보조하거나 특수한 음향효과에 사용된다.



심벌즈 연주자 / sabian.com



세트드럼 심벌들 / drumeo.com

탐파니는 실 새 없이 연주하는 반면 심벌은 단지 몇 번 ‘챙’하고 소리 내는 것으로 강력한 인상을 준다. 오케스트라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투티나 클라이맥스에서 굵고 파격적인 임팩트를 선사하는 심벌을 만나보자.

이 악기는 두 개의 커다랗고 둥근(14~18인치) 금속 솔뚜껑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부문으로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다. 커다란 금속 접시에서 연상되듯이 아주 큰 금속의 강력한 파열음부터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약한 음을 낸다. 오케스트라에서 단지 리듬만을 연주하는 것 외에도 큰 음량으로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도 한다. 콘서트에서 연주자가 이 악기를 서로 부딪친 후에 두 손으로 번쩍 들고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꽤 오랫동안 울림이 지속된다.

심벌은 연주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손잡이가 달린 심벌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손잡이가 달려 양손으로 연주하는 심벌(오케스트라 심벌)로서 두 장을 단타나 연타로 부딪치기도 하고 혹은 부딪친 후에 관객 쪽을 향해 짹 펼쳐서 울림을 전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 심벌의 끝으로 맞은편 심벌의 보우를 긁어서 마찰음을 내기도 한다. 때로는 몸에 살짝 갖다 대어 뮤트를 하기도 한다. 심벌은 많은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화려하게 때로는 절제된 연주를 보인다. 이 악기의 연주자는 인쇄심도 강해야 하는데 연주하지 않을 때에도 곡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악보를 주시해야만 자기의 연주 부분을 실수로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 심하게는 단 한 번의 연주를 위해 오랜 기다림의 고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스펜디드^{suspended} 심벌

스탠드에 장착하여 연주하게 되는 서스펜디드 심벌이 있다. 서스펜디드 심벌은 하나의 심벌을 스탠드에 세워서 말렛으로 연주하게 된다.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세트드럼과 같이 설치하며 주로 라이드 심벌, 크래쉬 심벌, 스플래쉬 심벌, 오존 심벌, 차이나 심벌 등이 사용된다.

하이햇 심벌

대중음악이나 재즈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이햇 심벌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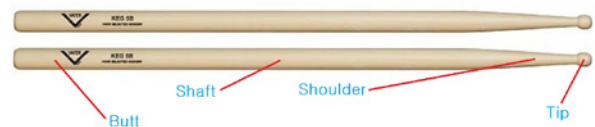
데 이것은 2장의 심벌을 마주 보게 설치하여 발로 연결된 페달과 스틱 등으로 연주한다. 킥과 스네어가 규칙적으로 연주되는 단조로움을 매우기 위하여 음과 음 사이를 조개거나 채우는 역할을 한다.

하이햇 심벌은 3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페달을 발로 밟았다 떼면서 하이햇 자체에서 나는 소리이다. 두 번째는 페달을 밟고 있으면서 스틱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클로즈드^{closed} 하이햇이라 한다. 세 번째는 페달을 밟지 않고 하이햇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데 오픈^{open} 하이햇이라 한다. 하이햇은 페달이 있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를 조절하며 연주할 수 있다.



하이햇 심벌 / asremohri.top

하이햇의 연주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한 사운드를 연주하는 방식인데 하이햇을 닫은 채 스틱의 팁으로 보우 부분을 친다. 두 번째는 하드한 사운드를 연주하는 방식인데 하이햇을 닫은 채 스틱의 솔더로 엣지 부분을 치거나 혹은 보우 부분을 친다. 세 번째로 하드락같은 거친 사운드를 연주하는 방식은 하이햇을 하프오픈^{half open} 상태로 하여 스틱의 솔더로 엣지 부분을 강하게 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재즈나 스윙에서 2비트 연주 시 스탠드를 스틱으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주법도 있다. 표준적인 사이즈는 14인치이지만 10~15인치의 다양한 사이즈도 있다. 주로 바텀 하이햇을 탑 하이햇보다 조금 두꺼운 심벌을 사용하여 세팅한다.



드럼 스틱 / drum-tec.com

대중음악에서 심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라이드^{Ride} 심벌

크래쉬 심벌에 비해 두껍고 크게 만들며 사이즈는 18~22인치가 표준이며 주로 리듬을 짚는 역할을 한다. 연주법은 보우 부분을 스틱의 팁으로 타격한다. 컵을 스틱의 솔더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소리는 더 크고 높은 소리가 나며 리듬에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이다.



라이드 심벌 / thomann.de

크래쉬^{Crash} 심벌

라이드 심벌에 비해 작고 얇은데 사이즈는 15~18인치가 표준이며, 주로 깨지는 금속성 사운드가 특징이며 효과나 액센트를 줄 때 사용된다. 연주법은 스틱의 솔더로 엣지를 치면 된다. 또 다른 연주법은 스틱을 거꾸로 들어 중간 부분을 엣지에 치는데 발라드 등에 효과로 사용한다. 때로는 치고 나서 바로 뮤트를 하는 연주법도 있는데 왼손 엄지 손가락에 스틱을 끼운 채 왼손의 모든 손가락을 동원하여 뮤트한다.



크래쉬 심벌 / thomann.de

이펙트^{Effect} 심벌

① 차이나^{China} 심벌 : 엣지 부분이 위로 휘어져 있으며 중국 경극 등에도 사용되며 주로 세트드럼에서 강렬한 액센트를 줄 때 연주한다. 또한 곡의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라이드 심벌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표준 사이즈는 16~20인치로 크기가 큰 심벌 중 하나이다.



차이나 심벌 / thomann.de

② 스플래쉬^{Splash} 심벌 : 작고 얇아서 '치익'하는 짧은소리가 나며 짧은 액센트 연주나 필인 연주 시에 사용한다. 표준 사이즈는 6~12인치이다.



스플래쉬 심벌 / thomann.de

③ 시즐^{Sizzle} 심벌 : 주로 라이드 심벌 등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리벳을 삽입해서 만든 심벌인데 연주 시에 이 리벳과 심벌이 같이 진동하면서 독특한 음색의 사운드가 표현된다.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체인 시즐러^{chain sizzler}가 있다.



시즐 심벌(rivet)
/ hifisoundconnection.com



체인 시즐러 / amazon.in

④ 벨^{Bell} 심벌 : 5~12인치의 작은 심벌로 높은음을 낼 수 있다.



벨 심벌 / sweetwater.com

⑤ 오존^{O-Zone} 심벌 : 크래쉬 심벌의 일종으로 크래쉬 심벌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깨지는 듯한 효과를 상승시킨 것으로 예전엔 귀한 모델이었으나 요즘은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오존 심벌 / sweetwater.com

⑥ 스파이럴^{Spiral} 심벌 : 나선형으로 심벌을 잘라서 길게 늘어트려서 연주하는 심벌인데 짧으면서 금속성의 사운드를 낸다.



스파이럴 심벌 / thoman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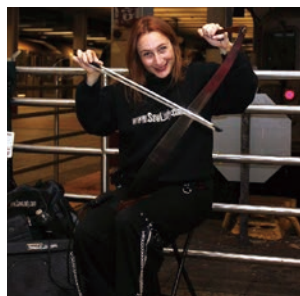
심벌에 관련한 뒷이야기

서스펜디드 심벌 활 연주와 톱^{Musical Saw} 연주

서스펜디드 심벌을 말렛이나 스틱으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악기의 활로 연주하는 방식도 있다. 금속 철판을 활로 연주한다는 개념은 톱 연주와도 닮아 있는데 실제 목수들이 나무를 자르는 톱을 악기용으로 개량해서 연주하는데 톱을 휘면서 다양한 음정을 만들어 낸다. 톱을 고정하는 발을 떨거나 손을 떨면서 바이브레이션을 표현하는데 그 특유의 소리가 아름다우면서 신비로운데 전자악기인 테레민이랑 비슷한 음색의 소리를 낸다.



심벌 활 연주
/ livingssymphonies.com



Musical Saw
/ epicureandculture.com

심벌의 사촌, 공^{Gong}(= 탬탐^{Tam Tam})

공과 탬탐은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진 크고 둥그런 악기로 요즈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공과 탬탐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긴 하나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비교적 음이 높은 것을 공이라고 하며 반대의 것을 탬탐이라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가믈란'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에서 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악기가 유럽으로 전해져서 점차 사용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의 징과 비슷하나 그보다 훨씬 높은 음이 나온다. 공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꼭지가 나와 있고 음정이 두드러지며 배음 열이 어느 정도 조율된 악기이다. 그래서 tuned라는 말은 공에만 사용하게 된다.



공 / guitarcenter.com

행 드럼^{Hang Drum}

이 악기는 볼록한 모양의 철판으로 만든 반구 두 개를 붙여 만든 것으로 비교적 현대에 개발된 악기로 2000년 스위스의 팬아트사에서 만들었다. 위쪽을 덩 사이드라 하고 아래쪽을 구 사이드라고 한다. 행 드럼의 구조는 덩 사이드의 한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덩이라고 하는데 덩과 덩의 아래 방향에 원을 따라 가지런히 배열된 7~8개의 노트로 이루어져 있다. 노트는 다시 오목하게 파인 딴플과 딴플 주변을 톤 필드라고 하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트를 손가락 끝으로 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음과 배음들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을 낸다. 행 드럼, 핸드팬, 팬탐, UFO 드럼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제품으로 텅^{Tongue} 드럼이 있다.



행 드럼 / amazon.com

조 존스의 심벌

찰리 파커가 세기의 색소폰 연주자가 된 계기는 조 존스가 그의 심벌을 던져 머리에 맞았다는 일화가 있다.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 그는 피나는 연습을 통해 엄청난 연주자로 거듭나게 된다. 그때 조 존스가 고맙게도 심벌을 던지지 않았다면

우린 찰리 파커의 색소폰 연주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일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그만큼 혹독한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울타악기의 음원들

- 1) 베르디의 레퀴엠 중 디에스 이레
Ulster Orchestra (빅사이즈 베이스 드럼)
- 2) 베르디의 레퀴엠 중 디에스 이레
Claudio Abbado, Berlin Philharmonic
- 3) Davul
- 4) Concert Bass Drum : Playing Techniques
- 5) Marching Band Bass Drum
- 6) Concert Bass Drum 타점, 스틱의 종류에 따른 음색변화
- 7) 200 to 300 BPM single strokes double bass drumming
- 8) 10 Stupidly Fast Drummers in Metal
- 9) Rick Allen Drums Solo
- 10) Louie Bellson at The BBC -1980
- 11) Classic snare drum
- 12) Marching band snare drum
- 13) Rock snare drum(Led Zeppelin John Bonham)
- 14) Set Drum의 구성 요소
- 15) How to Do a Rim Shot (All Three Kinds)
- 16) 우드 스틱, 플라스틱 캡, Hot Rods, Brush
- 17) 탐탐 연주
- 18) O Fortuna - Carmina Burana (Carl Orff)
- 19) Ozzy Osbourne - Opening, O Fortuna and Bark at the Moon
- 20) Minnesota Orchestra : Cymbals Demonstration
- 21) 세트드럼 심벌들
- 22) Sizzle Cymbal(Rivet)
- 23) Sizzle Cymbal(Chain Sizzler)
- 24) Bells Comparison
- 25) Ozone Cymbal Comparison
- 26) Spiral Trash Effects Cymbal
- 27) Suspended Cymbal 활 연주
- 28) Musical Saw
- 29) Gongs - Four Types Compared
- 30) 80" Symphonic Gong
- 31) Hang Drum



무울타악기 플레이리스트

이것으로 본 연재물 마지막 주자 무울타악기를 마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마지막 연재에 도달하면서 대망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동안 필자의 원고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에필로그

악학궤범의 첫 장을 보면 “음악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깃든 것이며, 빈 곳에서 생겨나 자연에서 완성된다. 이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피를 돌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며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라고 쓰여 있다. 필자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이다. 훌륭한 악기야말로 음악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된다. 천지창조 이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악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BTS가 빌보트 차트 1위(우리나라에서 빌보트 차트 1위를 하는 뮤지션의 출현은 불가능할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를 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전 세계인의 팬덤화를 보며 음악이 주는 힘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설레게 하고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일까! 그 숙제는 각자가 풀기로 하고...

사람은 딱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이 말은 열린 자세로 세상의 일을 임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인의 아집이나 도그마에 빠져 있거나 혹은 본인의 지식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 알아갈 때 비로소 인식의 확대가 일어남을 뜻한다. 근자에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인 ‘내로남불’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닫힌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을 대변하는 말로 잘 표현된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단어이다. 나의 무지를 인지하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못 보던 것과 못 들던 것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인식의 폭이 보다 더 확장됨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요즘같이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영상과 이미지 문화가 주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리와 음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으나 사실은 태고부터 가장 오래되고 직관적인 정보전달 수단이 바로 소리였다. 소리를 다루고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음향엔지니어로서 필자는 많은 이들이 소리와 음악에 관해서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음악은 자고로 소리가 놓여 있는 자리(음표)와 없는 자리(무음 혹은 쉼표), 즉 두 요소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다름없다. 침묵이나 쉼표 없이 계속 음표만 나열되어 있다면 질풍같이 쇄도하는 소음처럼 느껴질 것이고 쉼표만 계속 존재해도 따분하며 적적할 것이다. 음악은 마치 적당한 여백의 미를 주는 동양화처럼 음과 음 사이의 무음(쉼표)도 합쳐져서 진정한 예술로 탄생

하게 된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처음에 부모의 유전자로 출발해서 수정, 착상, 잉태의 과정을 거치고 분만 과정에서 세상의 첫 울음을 시작으로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장대한 여정이 모두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음악 자체인 것이다. 결국 음악이란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의 거대한 맥동이요 작동 원리이자 질서가 현실화한 것이며 우리는 이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현존하는 것이리라 여겨진다.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음악의 향연인 것이다.

그동안 음악과 소리를 다루는 음향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음악에 푹 빠져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이 연재 코너에 몰두하였다.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이론 위주의 악기개론서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악기교양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악기에 대한 새로운 앎과 함께 악기에 관련한 뒷이야기, 그리고 생생한 동영상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찾고 궁구하는 과정에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방송과기술 편집팀, 특히 이진범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를 쓰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의 조언과 엄청난 시간, 노력이 동원되었다. 늘 원고 마감 시간이면 며칠 밤을 새면서 보다 나은 AV 자료와 그림, 오타 등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첫 원고를

송고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다소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이젠 훌가분하게 벗어던지고 쉬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했던 작업은 항상 뭔가를 즐기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작고 연약한 시작이 크고 창대한 완성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는 좋은 체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한 ubc 울산방송 임직원과 도움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끝까지 이 원고들을 다 달이 기다리며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리고 미처 다루지 못한 악기 요소들(전자악기, 성악, 지휘 등)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고 다듬어 추후 단행본을 만들 예정이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악기와 연주자에 대해 표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천재적인 음악가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음악계에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이 천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필자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 비록 재능을 타고나진 못했지만 즐기면서 해낸다면 그 결과물이 굳이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최선이라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

